

## 市 '속도전' vs 道 '속도 조절'...통합공항 이전 점점 찾아라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말에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결론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뢰 회복과 인식 전환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최근 강 시장이 2차례 광산구·서구 주민 설명회에서 내놓은 '합평 관련 발언', '합평차사' 언급에 대해 김 지사가 공식 사과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일각에서는 양 단체장의 '기 싸움'

이 시·도간 상생 모드 균열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일(광산구)과 12일(서구)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민·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 이후 전남도는 합평차사. 아무 소식이 없다", "12월까지 갔을 때 답도 없고 전남도나 무안군, 정치권이 흐지부지하면 결심해야 한다" 등 올해 말이 공항 문제의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발언 이후 광주시-전남도의 관계는 경색 국면이 뚜렷했다. 전남도는 3차례나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강 시장 발언을 반박하고

姜시장 "올해 말 데드라인...결론 안나면 결심"  
金지사 "올해 안 불가능...市 인식 전환 시급"  
氣싸움 속 상생 모드 균열 우려...정치력 절실  
광주 정치권 "10월 중 최적안 도출 11월 중재"

공식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영록 지사도 지난 19일 도청에서 열린 '전남도-광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데드라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강 시장의 '합평차사', '플랜B'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공항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전남도와 김 지사의 요구에 광주시와 강 시장은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지역 찬·반 여론

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터져 나온 강 시장의 돌발 발언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간담회 당시 "지금 무안군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강 시장이) 연말까지 안되면 플랜B 발안하시니, 압박해서 (무안군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광주시의 주객전도성인 론플레이는 전남도의 노력을 무시하고 전남도민 전체를 비하하는 행태"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갈등 양상이 사실상 자중지란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

하는 김산 무안군수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시·도가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울 경우 공항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시·도지사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회동을 통해 불필요한 기싸움을 끝내고 무안군에 대한 설득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와 함께 광주시-전남도 사이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에너지융복합단지 운영위 출범 23일 오후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철 한전 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인삼 폭염 피해' 농업재해 인정

전남도 건의 반영 내일까지 피해 조사 전남도는 23일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 농작물 재해 인정 정부 건의가 반영돼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조사에도 나선다.

전남도 집계 결과, 전체 전남 인삼 재배 면적 378ha 중 135ha(38%)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9-21일 호우로 인한 피해는 벼 도복 8천158ha, 배추 생육 장애 642ha, 낙과 55ha 등 총 9천1ha에 달한다. 인삼 폭염 피해는 25일, 집중호우 피해 조사는 10월1일까지 진행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ha당 벼 100만원, 배추 등 채소 250만원의 농약대, ha당 배추 등 채소 25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8만원의 대과대가 지급된다. 또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복벼 조사 기준을 기존 이삭이 팬 후 30일 미만에서 이삭이 팬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비 1등급 매입, 벼멸구와 호우로 인한 피해 벼 전량 '잡정등외' 매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건의했다. /양시원 기자

## "신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시·전남도·한전 '맞손'

전력망 신속건설 협약...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방침  
'에너지융복합단지 운영위' 출범...전국 6곳 중 최초

글로벌 에너지산업 선도를 위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전남도·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후 나주 한전에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은 융복합단지 지정돼 있는 전국 6개 단지 중 최초다.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철 한전 사장,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학계·연구계, 에너지 기업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 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는 에너지산업 산·학·연 전문

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풍력산업 등의 중점 산업 육성, 산·학·연·관 협력 사항, 정부 지원 건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는 지난 8월 개칭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다. 3개 기관은 선포식과 함께 융복합단지 생태계 활성화 전략 발표, 한국벤처투자 등 6개 기술지주회사의 에너지산업 투자 협력 협약 체결, 에너지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3개 기관은 출범식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활성화와 전력망 조기 확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협력 사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협약과 운영위원회 출범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며 "지난 8월 정부의 계통망 포화 해소 대책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의 난관이 예상되지만, 분산에너지 자원 특화 등 유기적·분산형 재생에너지 산업을 기회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출범은 지역 발전과 에너지산업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세계적 에너지 기술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양시원 기자

##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주력

市, 대체지 무등산 사유지 81만㎡ 제안...12월 최종 선정

광주시가 올해 안에 미래차국가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및 그린국가산단 인근 오운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을 조성한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 부지 총 338만㎡ 중 95%에 해당하는 321만㎡가 그린벨트다. 이 중 국토교통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 135만㎡(42%)는 조건 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33%)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25%)의 경우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75.4km² 중 49.8km²가 그린벨트로 지정됐고 나머지 25.6km²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이 중 공유지인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7천108㎡(약 25만평)를 그린벨트(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b>Today</b>	광주도심 118곳에 필로폰 숨겨	6면
<b>Art Bank</b>	'예술을 선물합니다'	14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화순은 새농기! 주민으로 행복하게!

### 2024 화순 고인들 가을꽃축제

**2024. 10. 18. (금) ~ 11. 3. (일) 17일간**

화순 고인들유적지 일원

http://www.hwasun.go.kr/festival  
문의전화 061) 379-3575-7